

광주 온 민주통합당 대권주자 김영환 의원

## “영남·친노 후보론 정권교체 어렵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밝힌 김영환(경기 안산 상록구·4선) 국회의원은 28일 “민주당 내 영남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 후계자들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참여정부 프레임으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며 “국민은 또다시 영남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후계자들로는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총선과 통합진보당 사태를 거치면서 광범위한 중도층을 견인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야당이 여당을 의식해 영남후보를 고집할 경우 대선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층과 중도권 유권자를 포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국 이래 김대중 정부 5년을 제외하고 영남이 정권을 독식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 소통·통합력 부족 박근혜

#### 두려워할 후보 아니다

#### 영남후보 고집하면

#### 중도층 유권자 포용 못해

련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고질적인 지역배권과 이념갈등을 영원히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그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나라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정권을 교체해 나라를 구하는데 신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거론된 야권 대선주자 중 누구보다도 민주 정통성을 가진 후보이자 일관성 있게 정통민주당을 지켜온 DJ(김 대중)적자”라며 “경제를 살릴 희



적인 성장으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며 “또한 남북화해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남북한 공동의 경제 불을 일으키고, 기술혁신·중소기업·내수 중심으로 경제체질과 구조를 혁신해 성장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정책비전도 밝혔다.

또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에 대해 “박 의원은 강력한 후보지만 두려워해야 할 후보는 아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상상력과 소통력, 통합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당원과 국민들은 민주당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이념의 낡은 옷을 벗고 중도계를 포용할 인물, 역동적인 경선을 거쳐 여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의 중심에서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조선 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창조적 인재에 달렸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적인 정책과 비전, 필승의 전략을 가지고 반드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꽤 정권교체를 이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는 경제살리기와 지속

## 광산구의회 후반기의장 선거 경쟁 치열

### 민주당 후보 4명 출마… 단일화 못해 난립

#### 통합진보 ‘어부지리’ 설도

광주 광산구의회 제 6대 후반기의장 선거가 후보들의 난립으로 물밀 경쟁이 치열하다.

28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의장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3선인 박삼용·전양복 의원은 비롯해 2선인 차경섭·김명수 의원이 ‘내가 적임자’라며 동료 의원들과 활발한 접촉을 시도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그동안 수차례 단일화

화를 위한 협의를 거쳤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치열한 경합에 따라 통합진보당측 국강현 의원의 ‘어부지리’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9명, 통합진보당 소속이 5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 민주당측의 또 다른 대안으로 현 이준열 의장까지 후반기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등 흐미 상태다.

구의회 관계자는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물밀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향후 당내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김동철 국회의원의 의중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자율적인 합의로 주대를 하거나 공정한 경선을 거쳐 본회의에서 민주당측 의장이 선출되는 것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과학로켓연구센터(고흥), 담양 제5경마장 유치, 경량 합금 이선 생산 기술 연구센터(목포) 등 전남의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 전남도, 국고지원 간담회

전남도가 현안 사업의 원활한 국고 지원을 위해 28일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12명을 대상으로 2013년 국고지원 건의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등 전남지역 성장거점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 과학로켓연구센터(고흥), 담양 제5경마장 유치, 경량 합금 이선 생산 기술 연구센터(목포) 등 전남의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현대공인증개사

공인증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림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지연녹지 · 용도 : 주거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7천만원

#### 〈상무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900만원

#### 〈상무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원로.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홀름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co.kr

## “박람회에 중국인 많이 보내겠다”

여수 온 中 왕치산 부총리, 박준영·정몽구 면담



박준영 전남지사가 28일 여수세계 박람회 중국 국가의 날 맞아 박람회장을 방문한 왕치산 중국 국무원 부총관, 박준용 외교통상부 산하 관 등 24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섬·해안선·개발 등 세계적 해양자원을 보유한 전남에서 처음 개최되는데 박람회 주제에 맞게 바다 위에 수준 높은 전시물을 선보이고 있어 중국 정부 차원의 여수박람회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를 당부했다.

또 “지난 1992년 한·중 수교와 한·중 FTA 협상 개시 등으로 현재 양국 경제협력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치산 부총리는 “여수박람회에 중국인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한국과 경제교류는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이날 왕치산 부총리를 만나 중국에서 현대차그룹이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지원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피셜기자 kroh@kwangju.co.kr



정몽구(왼쪽 두번째) 현대차그룹 회장과 왕치산 중국 국무원 부총리( 첫번째)가 28일 오후 여수엑스포 현대차그룹관을 둘러보고 있다.

#### 지자체 공무원 등

#### 박람회 방문 러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과 호남한우회 회원들이 잇따라 여수박람회장을 찾아 침체에 빠진 지역 상권회복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여수시는 박람회 개장 후 시내 공동화 현상 심화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호남한우회 회원들에게 박람회장 안내와 시내권 숙식, 특산품 애용을 권장하면서 지역 상권 회복을 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박람회 개장 후 지금 까지 재경여수 항우회원을 비롯 경기, 제주, 대구·경북 등 지역별 호남·여수 항우회원 1500여명이 박람회장을 관람하고 시내권 숙박시설과 음식점 이용했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 오늘의 여수엑스포

여수세계박람회는 지루할 틈이 없다. 전시관 입장 시간을 기다리는 관람객을 위해 풍성한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오늘 추천 공연은 아쿠아리움 외벽에서 와이드 타는 아찔한 공중퍼포먼스 공연 ‘날다’. 몸을 줄을 매단 배우들이 건물 외벽을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은 탄성을 자아낸다.

- △날다(아쿠아리움·오전 11시)
- △광주문화의 날(천막극장·오후 2시)
- △국가의 날·세이실(엑스포홀·엑스포홀)
- △국가의 날·중국(엑스포홀·오후 10시)
- △전통화례 재현(전통마당·오전 11시30분)
- △엑스포 팝페스티벌·에어핑크, 허각·엑스포 특설무대 오후 8시)
- △해상소(꽃피는 바다)(해상무대·오후 2시)
- △DJ댄스쇼(엑스포특설무대·밤 9시 30분)
- △어제의 관람객 수=5만2213명(이하 28일 오후 6시 현재)
- △누적관람객 수=244만3594명

#### 첨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 파실분양!

(8억~12억 계약 가능)

#### 《매수자 대기 중!》

#### 광주원룸매매

#### 원룸 파실분양 대환영!

(매수자 대수 대기 중)

####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 광주 전남 토지매매

#### 파실분 → 빠른 계약 가능!

####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림!

#### 우림 공인증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 상무랜드공인증개사

#### 상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평)
-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30만원(21평)
-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동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만원(14억5천평)
-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 2층건물 164평 건물 2,000평(31평)
- 임대보증금 5억 월 1,500만원

#### 토지(매매)

- (상무지구) 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동기능, 시설영업중)
- (상무지구) 183㎡(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경기능, 시가코너)
- (상무지구) 1,3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동기능)
- (상무지구)